



# 교섭속보

## 12호

2021년 9월 1일 수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 노재옥

산별총파업 7-1

# 더 나은 내일의 우리를 위해 9.1 오늘을 마주합니다.

“저를 대신해 어머니의 손을 잡아 주신 간호사 선생님”

‘고령된 죽음’ 그 곁을 지켜 주시는 의료진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팔순이 넘은 어머니가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셨고 결국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다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환자의 마지막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더 나은 보건의료환경을 위해 파업에 나섭니다.

## 파업전야제로 모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각 병원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 ◆ 일정 안내 ◆

- 오후 5시 30분 : 식사 완료 후(직원식당에서 도시락 식사) 병원 로비로 집결
- 오후 5시 50분 :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참가(유튜브 채널 “보건의료노조TV” 에서 파업전야제 시청 가능)
- 오후 6시 45분 : 지부 교섭상황 공유 및 파업 지침 발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긴급 담화문 발표

지난 5월 31일 시작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와의 노정교섭이 일부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더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나순자 위원장은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파업을 가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요구안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는 내용을 담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파업 1-1,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파업을 3일 앞두고 8월 30일 열린 12차 교섭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4시간 마라톤 교섭으로 진행됐으나 일부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 연속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여전히 수차례 이야기 해왔던 복지부의 어려운 상황만 되풀이 하고 있는 듯 하여 아쉽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됐던 지난 3개월 동안 "중장기 과제들이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외에 우리 외에도 다른 이해당사자와 어떤 추가적인 논의들을 진전시켜 왔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해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는지도 답해야 합니다.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3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노정교섭을 진행했지만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8개 핵심과제와 22개의 세부과제에 대해 두차례 마라톤교섭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은 노조에서도 최대한 파업까지 가지 않고 타결하기 위한 진정성의 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합의되지 못한 남은 5개 과제(▲코로나 전담병원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처우개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전면 확대 ▲야간간호료 지원 등)는 노조가 애초부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이며 파업까지 이르지 않기 위한 핵심과제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파업을 배수진으로 이 논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를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이 결단해야 합니다.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역할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여야 대표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한 만큼 예산과 입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에도 응답이 없다면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는 유튜브 채널 ‘보건의료노조TV’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는 세종정부청사와 전국 각 지역에서 현장의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을 알리는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